



느  
기  
(Feel)이 있는 관광



안동문화  FEEL

48 Winter 2019

[tourandong.com](http://tourandong.com)

안동 유일의 관광잡지



안동시  
ANDONG CITY



안동축제관광재단  
Andong Festival Tourism Foundation

# CONTENTS

## A

P. 04-09

### Amazing Andong

2020안동암산얼음축제



## N

P. 10-13

### Natural Andong

안동의 겨울



## D

P. 14-17

### Delicious Andong

안동의 맛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 2019...Winter ... VOL.48

## O

P. 18-23

### Original Andong

안동의 숨어있는 문화재 '근대문화유산'



## N

P. 24-29

### Neighborhood Andong

신세동 벽화마을



## G

P. 30-33

### Great Andong

놀팍(NOLPARK)



P. 34-39

### 안동이모저모

안동축제관광재단 소식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식  
안동문화 소식



발행인 권영세      발행처 안동축제관광재단      편집책임 하주희      편집위원 박원호      권재환 김주호  
주소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239      대표전화 054-856-3013      팩스 054-852-9230      이메일 hahee1212@naver.com  
홈페이지 [www.tourandong.com](http://www.tourandong.com)    [www.maskdance.com](http://www.maskdance.com)  
발행일 2019년 12월(통권 제48호)      디자인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 제자(題字) 장종규

©안동필 / 본지에 실린 어떤 내용도 안동축제관광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겨울왕국으로의 초대, 2020 안동암산얼음축제

영남지역 최대 겨울축제인 안동암산얼음축제가 2020년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안동시 암산유원지 일대에서 펼쳐진다. 안동암산얼음축제는 매년 겨울의 절정기인 대한(大寒)과 소한(小寒)사이에 '대한이와 소한이의 신나는 겨울여행'을 주제로 개최되며, 2020년 1월 18일(토) 개막식을 시작으로 썰매, 얼음낚시 등 다채로운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다.

'렛잇고(Let it go)'를 외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월드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후속작, <겨울왕국(Frozen)Ⅱ>가 개봉했다. 전편과 달리 더욱 환상적으로 연출된 겨울 장면으로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겨울왕국의 매력에 매료됐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겨울왕국과 같이 이색적인 장관을 감상하고, 겨울 묘미를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올 겨울 '2020 안동암산얼음축제'로 떠나보자.



축제 개최장소인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암산유원지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특히 겨울이 되면 아렌델 왕국과 같이 온통 얼음왕국으로 변신하여 매년 겨울왕국의 판타지가 실현되는 곳이다. 남후면 광음리는 자암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일조량이 적은 곳으로, 겨울철이면 낮은 기온과 잦은 바람으로 하천이 얼어 자연적으로 빙판이 조성된다. 이 빙판은 빙질 또한 우수해 빙상운동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빙상경기대회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안동암산얼음축제는 겨울 대명사 ‘눈과 얼음’을 소재로, 겨울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가득 채운 영남 최대의 겨울 축제이다. 1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겨울왕국의 설렘을 채운 다양한 겨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설 연휴기간에 진행되어 명절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얼음미끄럼틀, 이글루 등 얼음조각은 아이들의 눈높이와 감수성에 맞추어 조성해 자유롭게 만져보고 관람이 가능하다. 축제장 한 쪽에는 얼음빙벽을 설치하여 겨울을 한 눈에 느낄 수 있고, 축제장 곳곳에 형성된 조형물은 암산얼음축제만의 고유한 포토존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얼음판 위에서 즐기는 썰매, 스케이트 등 빙판을 이용한 놀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발끝부터 짜릿한 재미를 선사하며 특히,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잊었던 동심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또한, 주말에는 가족과 연인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아이스 컬링대회, 2인 1조 썰매풀기대회 등)가 운영된다. 이벤트는 현장에서 즉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혹은 연인별 조가 편성이 되고 토너먼트형으로 진행된다. 매서운 겨울철, 가족 또는 연인 서로 간의 사랑을 더욱 돋독하게 다질 뿐만 아니라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얼음낚시(빙어낚시, 송어낚시) 체험은 축제장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안동암산얼음축제의 필수 체험코스이다. 겨울 낚시의 즐거움을 제공해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직접 잡은 빙어는 식당부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튀김과 무침으로 요리도 가능하니, 축제장을 찾았다면 얼음낚시의 손맛을 느껴보길 추천한다.

이 외에도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병행되고, 유로번지, 빙상자전거, 눈꽃열차 등 다채로운 놀이기구도 함께 운영된다. 그리고 흥이 넘치는 퍼포먼스는 축제의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재미다. 안동지역의 젊은 춤꾼들로 구성된 암산얼음축제 놀이단 ‘한(寒)식구’의 화려한 공연은 안동 암산얼음축제만의 고유한 특색을 엿볼 수 있다.



2019년 안동암산얼음축제 기간에는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짧은 기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겨울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다. 또한 농한기·관광비수기인 겨울철, 지역 겨울자원과 관광을 연계하여 6차 산업의 핵심인 농촌관광축제로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상북도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며 지역에 떠오르는 축제로 기대를 받고 있다.

축제를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 목도리, 장갑, 방한화, 방한복 등 극한 추위를 맞설 수 있는 방한용품을 챙기길 추천한다. 안동암산유원지는 평균기온 영하 10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칫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다. 2020안동암산얼음축제는 작년 대비 관광객을 위한 휴게공간을 크게 마련했다. 쉼터와 수유실 등 편의시설도 구비했으니 이를 활용하여 추위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안동암산얼음축제장에는 먹거리 역시 즐비하다. 안동의 대표 음식은 물론 얼음낚시로 갓 잡은 빙어, 송어를 이용해 만든 이색 요리도 맛볼 수 있다. 축제장 주변으로 뜨끈한 오뎅, 컵라면, 봉어빵 등 겨울철 먹거리 또한 마련되어 있어 축제를 즐기다 꽁꽁 언 몸을 녹이며 먹을 수 있다.

오늘날 스마트폰, TV 등 디지털 매체 이용 증가 추세로 개인 활동을 중시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아동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은 가족 내 갈등은 물론 자녀의 두뇌 발달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기기 대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올 겨울 아이와 함께 ‘겨울왕국’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안동암산얼음축제’에서 다채로운 겨울놀이와 경험을 통해 추억을 만들어 보자!





## 2020안동암산얼음축제



## 안동의 겨울

글, 사진 더정성 |  
<https://blog.naver.com/jungsungpro>



바람불고, 추위가 자리한 계절 겨울 -

어릴적 까르르 웃음을 지으며 썰매를 타던 암산스케이트장을 다시 찾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행복했던 그 공간을 나이가 들어 찾아간다는 건 감회가 새롭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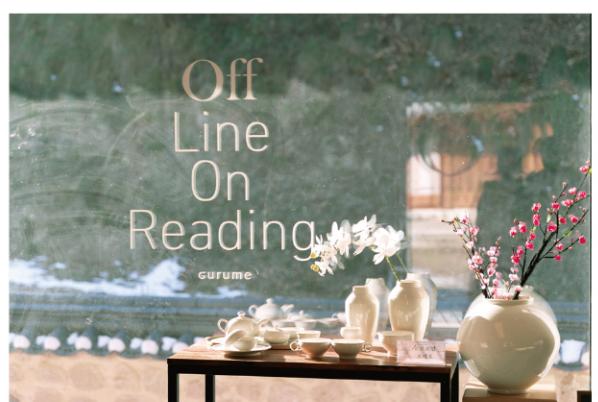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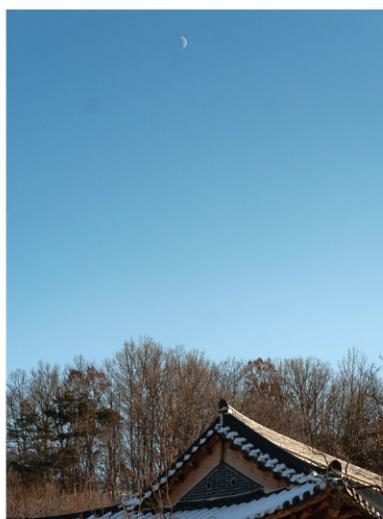
- 안동 암산유원지,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암산1길 59





시린 손은 장갑대신 당신의 손을 잡고  
뽀드득 뽀드득 눈의 촉감을 느끼며  
다시금 당신과 함께 걷고싶어요.

- 안동 전통리조트 구름에, 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촌길 190





겨울이 온다는 것은, 첫눈. 하얀세상을 시작한다는 것.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봐도 예쁜 이 곳 -

- 안동 태사묘,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길 13





안동의 겨울, 세상이 하얗게 변한 이 곳에서  
사소한 여행길에 만난 모든 풍경이 아름답길.

- 안동 응부공원,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93



# 안동의맛

글, 사진 남시언 | 콘텐츠 크리에이터, 작가, 파워블로거  
블로그 <http://namsieon.com>

## 해정한우



7천원짜리 한우된장정식에 13첩반상이 나오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맛이 훌륭한 식당이다. 가게 이름처럼 원래는 고깃집이지만, 점심특선 메뉴가 인기인 가게다. 상차림이 푸짐하고 알차서 SNS를 통해 빠르게 소문이 났고 이제는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 됐다. 저렴한 가격으로 13첩이라는 한정식 부럽지 않은 식단을 만날 수 있다. 기본 구성으로 나물비빔밥을 주며 반찬 중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갈비찜으로 정점을 찍는다. 고기와 두부가 푸짐하게 들어있는 된장찌개도 놓쳐서는 안 될 반찬! 점심특선은 2인 이상으로만 주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 추천 메뉴 13첩반상 한우된장정식(점심특선)

주소 안동시 말구리5길 5

휴무일 매주 일요일

전화번호 054-841-2679





## 옹짬

안동 옹천의 매운짬뽕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리가 멀고 투박한 식당이었지만, 언제나 줄을 서서 먹어야 할 만큼 매운 짬뽕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영업을 종료하면서 안동 미식가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 원조 옹천짬뽕이 ‘옹짬’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안동에도 매운짬뽕집이 여럿 생기면서 선택지가 많아지긴 했지만, 원조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옹짬이 환영받고 있다. 예전에 먹던 그 맛과 흡사하기 때문. 짬뽕은 매운맛과 보통맛으로 제공되며 식당이 깔끔하고 주차가 편리해서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짬뽕밥과 우동, 짜장면과 볶음밥 등 여러 가지 메뉴들이 추가되어 매운걸 못먹는 사람과 방문하기에도 좋다. 이곳 짬뽕 매운맛은 정말로 맵다.

주천메뉴 짬뽕

**주소** 안동시 제비원로 495  
**휴무일** 매주 화요일  
**전화번호** 054-843-0007





## 정성담은 밥집 율

경북도청에 인접해 있는 이 식당은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한 정식 또는 청국장을 맛볼 수 있는 가게다. 정식에는 기본 국이 나오고 청국장에는 계란을 포함한 비빔밥과 청국장을 함께 주어 알찬 한 끼를 해결하고 싶을 때 좋다. 밑반찬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는데다 전체적으로 정성스러운 집밥 스타일이며 식당 직원분과 사장님의 대단히 친절하다. 밑반찬들의 맛도 전체적으로 훌륭하며 리필도 가능하다. 청국장은 기본 2인 이상으로만 주문할 수 있다.

### 추천 메뉴 청국장

주소 안동시 풍천면 풍요3길 32-16

휴무일 매주 일요일

전화번호 054-843-5573





## 달카페

안동 임하면 임하리, 그것도 추월마을이라는 안동인들에게도 생소한 마을 초입에 감성적인 카페가 생겼다면, 누구나 호기심이 발동할 것이다. (추월마을은 3월초에 방문하면 아름다운 살구꽃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을이다.) 임하리에 생긴 달카페는 오픈한 지 3개월 정도된 따끈따끈한 카페로 사진 찍기에 좋은 포토존과 야외를 감상할 수 있는 다락방을 겸비한 곳이다. 카페 마당에는 달카페를 상징하는 달모양 포토존이 있어서 방문객들은 너나할 것없이 여기에서 인증샷을 남긴다. 카페는 1층과 2층으로 나뉘는데 1층에는 테이블이 단 하나 뿐이라서 보통은 2층에 자리를 잡는 편이다. 커플 방문객이라면, 오붓하게 다락방에서 담소를 나누는 걸 추천한다. 낮에 찾으면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밤에 방문하면 예쁜 조명이 켜진 포토존을 즐길 수 있다.

### 추천 메뉴 아이스크림 와플

주소 안동시 임하면 대추나무길 3

휴무일 휴무일 없음(2020년부터 주 1회 휴무 예정)

전화번호 054-823-4264

# 안동의 숨어 있는 문화재, 근대문화유산

글 이한승 | 물질문화연구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안동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여러 국보와 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안동의 국보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제15호),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제16호),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제121호), 징비록(제132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제311호)으로 건축물, 공예품,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고, 보물은 43개로 그 종류를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안동의 유명한 국보나 보물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소개하려고 한다.

안동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어 있는 문화재로서 네 가지 근대문화유산이 있다. 근대문화유산은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중세와 현대를 이어주는 문화와 역사의 결과물을 의미하며, 이때 근대는 1876년 개항을 기점으로 광복 전·후까지로 본다.<sup>1)</sup>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에는 과거와 현대 사이에 존재했으며 그 사이를 이어주었던 근대적 사회·문화가 투영되어 있다.

사람들은 근대문화유산을 보고 그것을 문화재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문화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오래된 것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첫 번째로 소개할 안동의 등록문화재를 본다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여겨져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문화재이다.<sup>2)</sup>



1938년 준공예배 후 안동교회

1) 정찬영, 김주호,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광학적 접근: 문화적 기억, 노스탤지어, 진정성, 경관 이론을 중심으로」, 『관광경영 연구』 90, 관광경영학회, 2019, 219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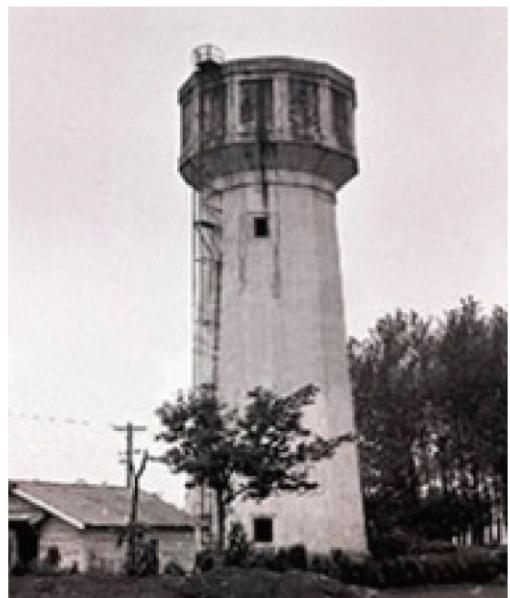
2) 여기에서 소개할 안동의 등록문화재 4개에 대한 기본정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다(<http://www.cha.go.kr/>).



안동역 급수탑 현재 모습

출처: 매일신문(<http://news.imaeil.com/Society/2018012600491126929>)

증기기관차에 급수하는 모습



1960년대 안동역 급수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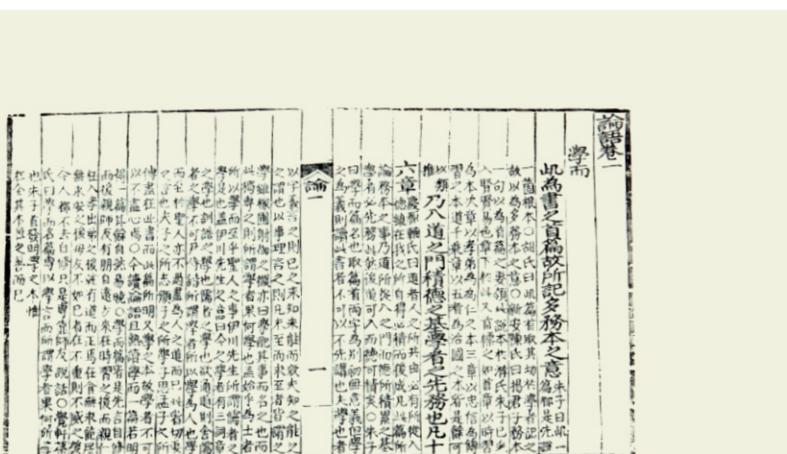
## 안동역 급수탑

첫 번째로 소개할 안동의 근대문화유산은 2003년 1월 28일에 등록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안동역 급수탑’이다. 이 급수탑은 1940년에 설치된 철도 급수탑으로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며, 1950년대에 디젤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제 기능을 다하고 말았다<sup>3)</sup>. 외부 형태는 12각형으로 다른 급수탑에 비해 형태가 독특하고, 기계실 천정이 돔형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전형적인 급수탑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안동역 급수탑은 증기기관차를 운행하던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으며, 한국 철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많은 사람들이 안동역을 이용하고 있지만, 안동역에 이러한 급수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3) 두산백과 ‘안동역 급수탑’ 내용 참고(<http://www.doopedia.co.kr/>).

## 박문서관 목판 일괄

두 번째로 소개할 안동의 근대문화유산은 2013년 4월 17일에 등록문화재 제541호로 지정된 ‘박문서관 목판 일괄’이다. 박문서관은 1907년 4월에 노익형(盧益亨, 1884~1941)이 신문화의 수입에 따른 책전 역할의 수행을 목적으로 서울에 설립한 서점 겸 출판사이다. 그리고 박문서관 목판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적의 인쇄를 위하여 만든 목판으로, 내용은 주로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四書)와 언해(諺解)의 21종 691매이다. 박문서관 노익형 사장의 후손이 보관해오다가 2010년 8월부터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하여 보관중이다. 원래의 종수와 매수는 알 수 없으며, 판면이 훼손된 경우가 있고, 판이(板耳, 마구리)는 모두 결실되어 있다. 20세기 초기의 한글 서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근대화 과정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목판 간행과 그 교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논어를 새긴 목판과 그 인쇄본



안동교회 예배당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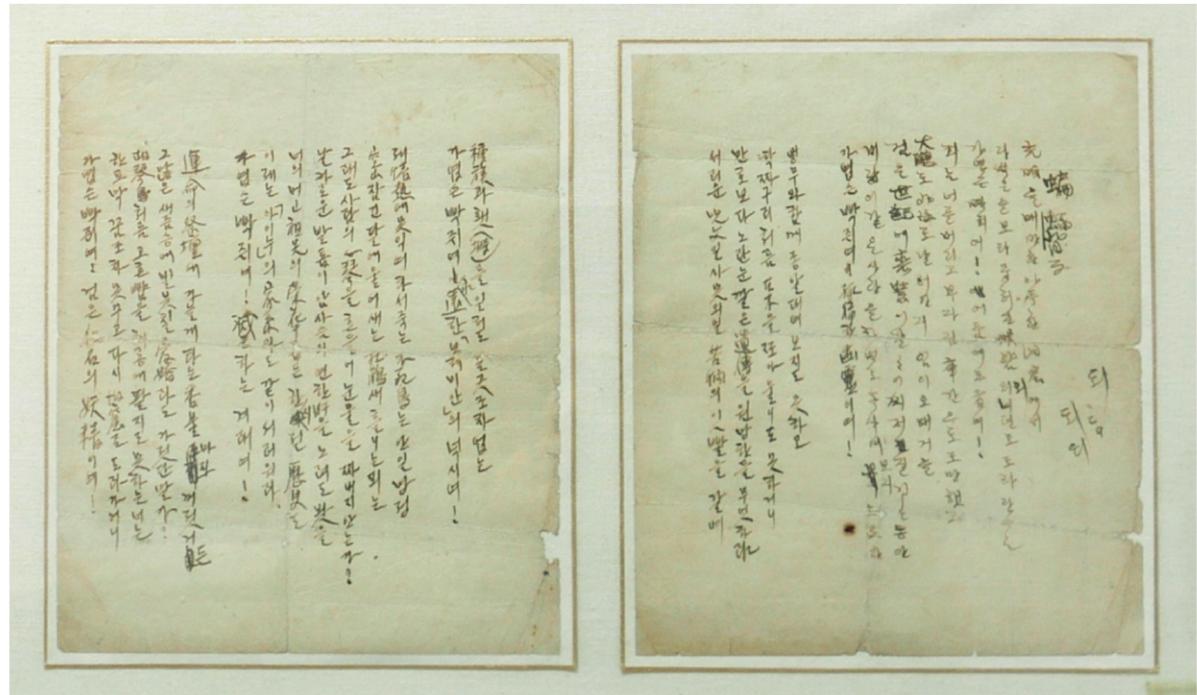
## 안동교회 예배당

세 번째로 소개할 안동의 근대문화유산은 2015년 12월 16일에 등록문화재 제654호로 지정된 ‘안동교회 예배당’이다. 안동교회는 안동 지역 최초의 교회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석조 외벽, 2층 마루, 지붕의 트러스 구조 등이 잘 남아 있다.<sup>4)</sup> 위의 두 가지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안동교회는 개인의 신앙과 별개로 안동지역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안동 시내 중심지와 가까운 길가에 안동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다닐 때 항상 안동교회를 지나쳤던 기억이 남아 있다. 다만 안동교회 예배당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지 못할 것이다.

4) 트러스 구조는 구조 부재가 휘지 않게 접합점을 삼각형으로 연결한 구조를 의미한다.

##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蝙蝠)’

마지막으로 소개할 안동의 근대문화유산은 2018년 5월 8일에 등록문화재 제713호로 지정된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蝙蝠)’이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이원록, 1904~1944)가 남긴 시 ‘편복’의 친필원고로, 동굴에 매달려 살아가는 박쥐에 빗대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하였다. 당시 ‘편복’은 일제의 사전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으나, 광복 후인 1956년 ‘육사시집’에 처음 수록되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육사의 시 중에서 가장 중량 있고 훌륭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편복’의 친필원고는 유족들이 소장해오다 경북 안동에 소재한 이육사문학관에 기증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蝙蝠)'<sup>5)</sup>

### '편복(蝙蝠)<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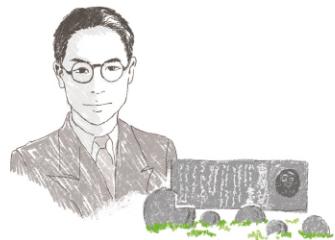
광명(光明)을 배반(背反)한 아득한 동굴(洞窟)에서  
다 썩은 들보라 무너진 성채(城砦) 위 너 홀로 돌아다니는  
가엾은 박쥐여! 어둠에 왕자(王者)여!  
쥐는 너를 버리고 부자집 고(庫)간으로 도망했고  
대붕(大鵬)도 북해(北海)로 날아간 지 이미 오래거늘  
검은 세기(世紀)에 상장(喪裝)이 갈갈이 찢어질 긴 동안  
비둘기같은 사랑을 한 번도 속삭여 보지도 못한  
가엾은 박쥐여! 고독(孤獨)한 유령(幽靈)이여!

5) 편복의 시 출처는 'KBS 천상의 컬렉션 자식백과'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42785&memberNo=34212982&searchKeyword=%ED%8E%B8%EB%B3%B5&searchRank=1>)

앵무와 함께 종알대어 보지도 못하고  
 딱짜구리처럼 고목(古木)을 쪼아 울리도 못 하거니  
 만호보다 노란 눈깔은 유전(遺傳)을 원망한들 무엇하라  
 서러운 주교(呪交)일사 못 외일 고민(苦悶)의 이빨을 갈며  
 종족(種族)과 혜를 잃어도 갈 곳조차 없는  
 가엾은 박쥐여! 영원(永遠)한 「보혜미안」의 넋이여!

제 정열(情熱)에 못 이겨 타서 죽는 불사조(不死鳥)는 아닐망정  
 공산(空山) 잠긴 달에 울어 새는 두견(杜鵑)새 흘리는 피는  
 그래도 사람의 심금(心琴)을 흔들어 눈물을 짜내지 않는가!  
 날카로운 발톱이 암사슴의 연한 간(肝)을 노려도 봤을  
 너의 머—ㄴ 조선(祖先)의 영화(榮華)롭던 한시절 역사(歷史)도  
 이제는 「아이누」의 가계(家系)와도 같이 서러워라!  
 가엾은 박쥐여! 멸망(滅亡)하는 겨레여!  
 운명(運命)의 제단(祭壇)에 가늘게 타는 향(香)불마자 꺼젓거든  
 그많은 새즈승에 빌붓칠 애교(愛嬌)라도 가짓단말가?  
 상금조(相琴鳥)처럼 고흔 뺨을 채롱에 팔지도 못하는 너는  
 한토막 꿈조차 못꾸고 다시 동굴(洞窟)로 도라가거니  
 가엾은 빅쥐여! 검은 화석(化石)의 요정(妖精)이여!



지금까지 안동의 근대문화유산 안동역 급수탑, 박문서관 목판 일괄, 안동교회 예배당,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蝙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은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의 문화를 간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거창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필자는 소박하게 사람들이 안동역 급수탑처럼 평소에 문화재로 생각하지 못했거나 안동교회 예배당처럼 항상 지나쳤지만 문화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달이 가장 크게 피어나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꽃이 되는

# ‘달피는 꽃동네 – 신세동 벽화마을’

글 정운정 | 다누림 협동조합 이사장

“쩌~기 위에 토끼 있는데 가서 사진 찍으소~, 사진이 참 예쁘게 나와”,  
“아이고 아래 멋진 청년들이 어데서 왔니꺼?”  
“쩌기 밑으로 가믄 찻집 있는데 차한잔 하고 가소~”

마을을 들어서면 먼저 구수한 할머니들의 인사를 들을 수 있는 곳,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는 얼굴을 마주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안동시 신세동 벽화마을이다.



신세동 벽화마을은 2009년 “길섶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에 벽화가 그려지면서 조금씩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우리가 ‘달동네’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의 그런 영남산 자락을 따라 방사형 계단 형식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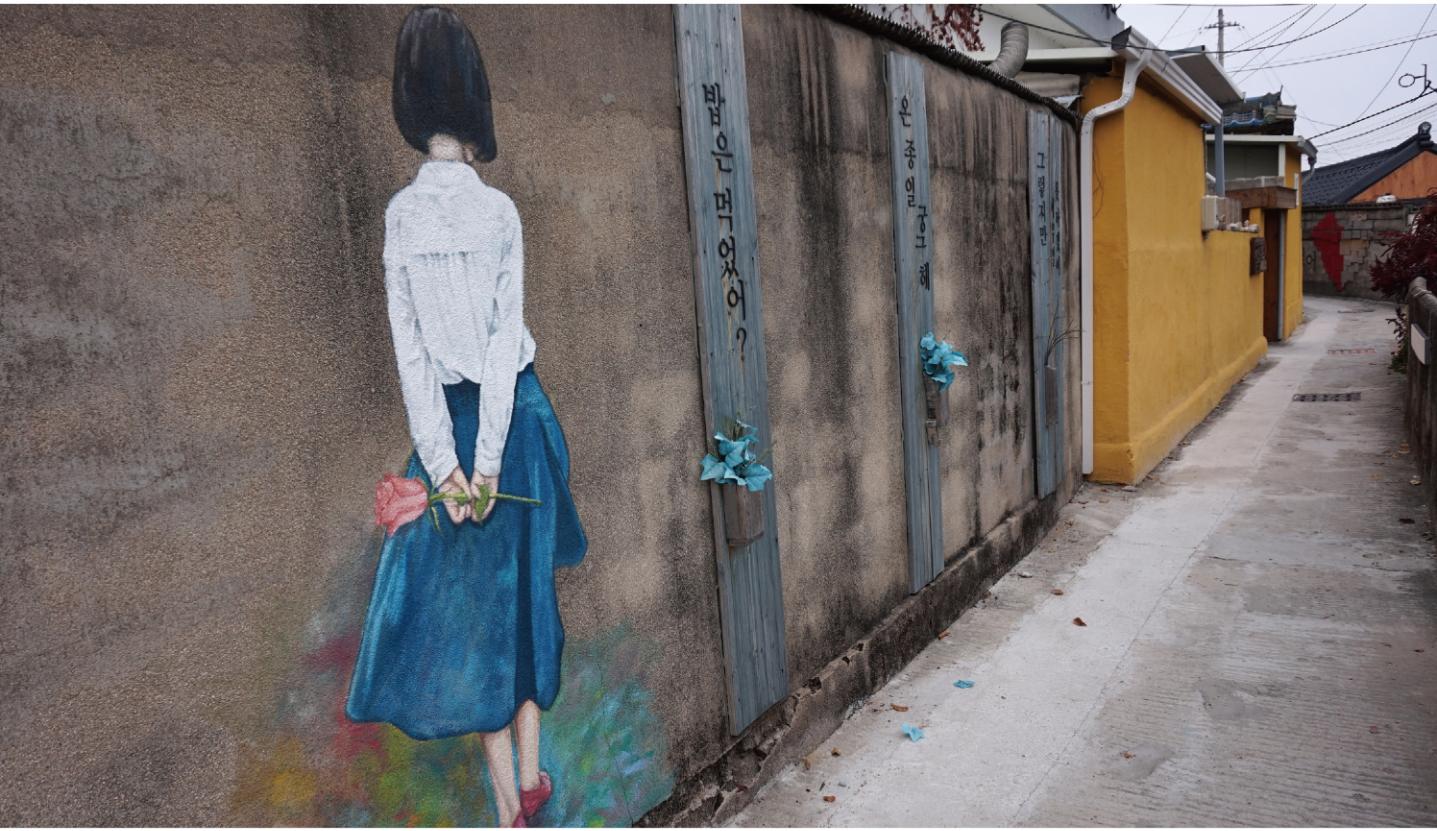
우선 이곳을 찾을 때는 조금은 여유로움을 준비해야 마을 곳곳에 숨어 있는 제대로 된 ‘마을’을 느낄 수가 있다. 곳곳에 숨어 있는 토끼들과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이야기, 실제 마을의 마스코트 강아지 이야기는 멋진 인생사진과 더불어 잠시간의 도심 속 “Healing-Box”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마을입구에 들어서면 ‘그림애 문화마을’이라는 입구 조형물이 눈에 띈다.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 그림을 사랑하고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넣어 주민들이 부르기 시작해 조금씩 신세동 벽화마을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함께 불리는 이름이다.

마을을 스스로 가꾸어 가는 마을 주민 공동체 이름도 ‘그림애 문화마을 협의회’로 주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았다고 한다.

마을을 돌다보면 타 벽화마을과는 조금은 다른 듯 한 부분을 쉬이 찾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주민들이 이름을 붙인 길들이 있는데 가장 아래 골목부터 ‘니가오 길’, ‘사랑하 길’, ‘행복하 길’,로 시작해 안동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꼭대기의 골목길은 ‘영원하 길’이다.



니가오 길



'성재정' 우물

사랑하 길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함께 하길 바라는 주민들이 글자들을 붙여 만든 골목길의 이름을 생각하며 마을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오르막길을 한참 오르고 내리다 보면 마을 상부에 천년동안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단 한 번도 마르지 않은, 어떤 홍수에도 넘치지 않았다는 ‘성재정’ 우물이 있다. 이 우물에서 손을 씻으면 인연이 맺어지고 우물 뒤로 무지개가 뜬다는 이야기가 내려져오는 우물에 손을 씻는 연인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마을 곳곳에 조금씩 모여들어 자리를 잡고 있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작은 상점들도 눈에 띈다. 지금은 많은 작가들이 모여들어 제법 입소문을 탄 ‘월영장터’도 2015년 이곳 신세동 벽화마을 주민들 예닐곱 팀이 함께 모여 시작한 ‘그림애 장터’에서 시작되었을 만큼 마을에서는 다양한 공예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림애 장터’와 ‘월영장터’를 통해 인연을 맺은 청년 공예 작가들이 하나둘 마을로 모여들어 지금은 빈 점포가 즐비하던 마을입구 건물이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지고 있다.



그림애 장터



월영장터



신세동 벽화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작품성 높은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단체로 마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때를 잘 맞추어 가면 할머니들이 비벼준 비빔밥이나 텁텁에서 주민들이 직접 구운 바비큐나 할매네 점빵에서 갓 째 온 옥수수등 도 후한 인심과 함께 무료로 먹을 수가 있다.

신세동 벽화마을(그림애문화마을)은 벽화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찾는 발길이 잣아진 곳이다. 그러나 그곳을 직접 걸어본다면, 그곳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진짜 그곳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세동 벽화마을 관련 문의: 054-858-8098

신세동 벽화마을 사용 설명

- 살거리: 할매네 점빵 / 마을 기념품, 방향제, 스카프, 향초 등 관광기념품
- 볼거리: 토끼들과 주민 실생활들로 가득한 인생사진 명소, 안동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
- 즐길거리: 목공예, 패브릭 아트 공예, 토탈공예, 그림책방, 그림공방(문의: 054-858-8098)

벽화마을과 함께 하는 주변 관광지

- 월영교: 국내 최장 목책 인도교, 도보 25분, 자가용 5분
- 임청각: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국무령 이성룡 선생의 생가, 도보 10분, 자가용 3분
- 짐닭골목: 구시장내 안동 대표 먹거리 골목, 도보 15분, 자가용 5분
- 삼태사: 안동과 고려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곳, 도보 10분, 자가용 3분
- 동악골: 민물매운탕, 자가용 15분
- 안동문화관광단지: 유교문화를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형 체험센터 자가용 10분, 대중교통 30분

## 올 겨울, 당신이 놀팍(NOLPARK)에 가야할 이유

글, 사진 장승학 | 놀팍(<http://nolpark.com>) 팀장



2019년 한해는 안동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NS 페이지인 ‘여행에 미치다’에 소개되어 안동의 고택과 관광지, 맛집이 짧은 층들에게 알려진 것은 물론, 각종 예능, 다큐, 생활정보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안동을 다녀가면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그 덕에 주말이면 안동에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주요 관광지 및 스팟들은 줄 서는 전 기본이 되었다. 거기다 경북신도청 개청 4년째를 맞아해 안동에는 사람과 함께 다양한 문화, 새로운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 으뜸은 바로, 놀팍이 아닐까!

놀팍(NOLPARK)은 국내 최초 독립운동 디지털 테마파크로, 지난 3월에 개장한 이후 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콘텐츠 우수사례 선정, 한국관광공사 추천여행지 선정,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서 e-콘텐츠 최고상 수상,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경북 게임 산업 발전에 대한 공으로 경상북도지사 표창패를 받으며 경북 및 안동의 위상을 전국에 떠렸다. 오픈한지 9개월 만에 대표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

어느덧 계절은 겨울을 맞이해 손과 발을 시리게 하는 날씨가 되었다. 이렇게 추운 날씨일수록 따뜻한 실내, 그리고 그런 실내에서 움직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 이 곳 놀팍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고 경험일 것이다.

더군다나 오픈하고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놀팍은 기존의 콘텐츠 외에 더 새롭고 재밌는 콘텐츠가 많이 추가되어 독립운동 디지털 테마파크라는 타이틀을 뛰어넘어 스포츠로 재미도 잡고 운동도 되는 일석이조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이름하여 스파(S-Park)이라는 네이밍의 콘텐츠인데, 추후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갈 계획으로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개발 중에 있다. 지난 9월에 6가지 콘텐츠를 업데이트 한 후 11월에는 추가로 4가지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총 10가지의 새로운 콘텐츠가 생겼다.



놀팍(nolpark)은 놀면서 체험하는 테마파크로서 안동에 처음으로 임청각과 석주 이상룡 선생을 소재로 한 독립운동 역사테마의 VR, AR 체험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스파(S-Park)이라는 콘텐츠로 확장되었다.

놀팍에는 8개의 콘텐츠가 있고(스파 포함) 스파에는 총 10개의 콘텐츠가 있어 세부적으로는 총 17가지의 콘텐츠가 있다.

-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순국선열들의 독립만세 운동을 체감해보는 **대한독립만세**

- 석주 이상룡 선생의 만주 망명길 중에 등장하는 일본군들을 무찌르는 **독립 영웅을 찾아 떠나는 여행**

-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의 마당을 가로지르는 일본의 중앙선 철도 공사로 인해 소실된 임청각의 예전 모습을 3D 퍼즐을 통해 맞춰보는 **임청각을 부탁해**

- 임청각의 3대 종부이신 허은 할머니께서 들려주는 생생한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이야기인 **스토리 박스**

- 만주 하얼빈역을 배경으로 일본군들로부터 석주 이상룡 선생을 지켜드리는 **석주를 기차에서 탈출시켜라**

- 만져도 손에 잘 묻지 않는 친환경 향균 모래로 모래 속에 숨어있는 총 부품을 찾아 총을 조립해보는 **미션! 숨겨진 총을 찾아 조립하라!**

- 볼풀장에서 직접 독립군이 되어 사격훈련을 해보는 **신흥무관학교 신병교육대**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스파(S-Park) 콘텐츠 10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제 놀팍에 오면 뭐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보면 된다. 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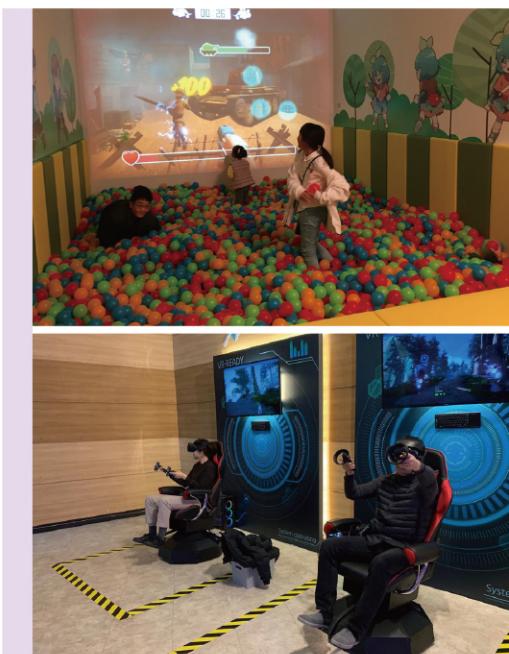
만약 당신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체험 횟수를 정해 원하는 만큼의 티켓을 끊어 이용할 수도 있다. 1회에 3000원, 2회에 5000원, 3회에 6000원이라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에 VR체험을 할 수 있다니! 알찬 구성으로 가격 이상의 재미와 감동을 함께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곳 놀팍에는 장소적 특성상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이 찾아온다. 한 가지 신기할만한 점은 가족 단위로 와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체험하며 추억을 쌓는 모습이다. 형제, 자매, 남매끼리 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은 호흡으로 놀팍 체험을 하면 아이들은 몇 배 이상으로 재밌어 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이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흐뭇한 광경이라 앞으로 오실 부모님들도 아이가 외롭지 않게 꼭 함께 체험하시길 추천 드린다.



안동이 다른 지역과 특별한 점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 축제가 많다는 점도 꼽을 수 있겠다. 축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 문화자원과 즐길 거리가 많다는 뜻이다. 그런고로 겨울에도 안동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데. 겨울에는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암산유원지 일대에서 암산얼음축제가 열린다. 겨울 콘텐츠가 부족한 경북지역에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암산얼음축제로 경북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안동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다. 겨울에 겨울 날씨와 시즌에 맞는 암산얼음축제를 즐기는 것도 물론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겠거니와 바깥에서 신나게 놀다가 얼어붙은 몸을 실내에서 녹일 겸, 신나는 스크린 스포츠, 스팩과 함께 안동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놀파까지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이 될 거라 감히 추천드리는 바이다.

## 어이, 젊은 양반! 묻고 놀팍으로 와~



## 바콜로드 마스카라축제와 문화교류 협약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바콜로드 마스카라축제가 지난 7일 바콜로드시청에서 상호 축제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탈 문화, 축제 정보 교환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방면에서 상호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본 협약을 시작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바콜로드 마스카라축제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트레블아이 어워즈 최우수상 수상



안동시는 트래블아이 어워즈에서 가을 축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트래블아이 어워즈는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광정보와 트레블 지수를 산정해 각 부문별로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시상하는 행사다. 안동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로 수상을 하며 축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 안동 관광발전 포럼



재단은 안동 관광의 현재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9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위한 관광포럼인 ‘우리지역 관광을 함께 이야기하다’에 참석했다. 행사는 손삼호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지역 내 문화관광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 중국, 대만 현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홍보



이에서 안동 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했다. 타이베이국제여전(ITF, 대만)과 중국국제여유교역회(중국)는 중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최대 관광박람회로 약 38만 명의 인원이 방문한다. 관광 홍보 부스 운영, 축제 홍보 영상 방영하는 등을 진행하며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 심찬양 안동 벽화 제작



재단은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작가와 함께 신세동 벽화마을(안동 동부초등학교)에 벽화 작업을 진행했다. 심찬양 작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아티스트로, ‘한복 입은 흑인 여성’ 작업으로 유명하다. 동부초등학교 벽면에 한복 입은 흑인 어린이를 그려 세계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문화도시, 안동’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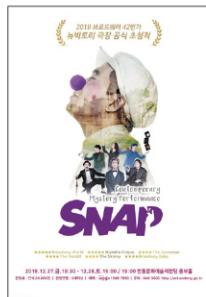
## 시민 문화활동가 양성 지원 사업 ‘나도강사’



역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 ‘나도강사’를 시행했다. 사업은 직접 강의 프로그램을 기획 및 구성하고 강의하는 방식으로 강의는 ‘강의형’과 ‘체험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문화 지역의 숨은 문화 인력을 발굴하고, 안동 시민들이 청강하여 문화활동 참여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프로그램(12월)

12월 공연



12월 전시



◎ 문의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054-840-3600 <https://www.andong.go.kr/arts>

## 안동암산얼음축제2020

- ◎ 축제명: 안동암산얼음축제2020
- ◎ 기간: 2020년 1월 18일(토) ~ 1월 26일(일) 9일간
- ◎ 장소: 안동 암산유원지
- ◎ 주제: 대한(大寒)이와 소한(小寒)이의 신나는 겨울여행
- ◎ 주요내용
  - 전시: 얼음조각 조형물, 눈빙벽 등
  - 체험: 썰매, 얼음낚시(빙어), 민속놀이 등
  - 부대행사: 가족·연인 아이스컬링대회, 썰매타기이벤트 등
- ◎ 주최·주관:
  - 안동시 / 안동축제관광재단, 암산얼음축제추진위원회
- ◎ 문의처: 안동축제관광재단(054-840-6398)
- ◎ 홈페이지: [www.binggo.org](http://www.binggo.org)

※ 2020안동암산얼음축제는 결빙상태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동 관광 묻고 더블로 가!

- ◎ 기간: 2019년 10월 21일(월) ~ 12월 27일(금)  
3개월간
- ◎ 참여방법: 안동관광홈페이지  
(<http://www.tourandong.com>) 접속해  
'안동문화필' 뉴스레터 구독
- ◎ 결과발표: 익월 20일
- ◎ 이벤트상품: 안동 기념품(30명)
- ◎ 문의: 안동축제관광재단(054-856-3013)



## 2019 가족사랑 합창뮤지컬

- ◎ 기간: 2019년 12월 28일(토) 16:00
- ◎ 장소: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
- ◎ 행사내용: 세계적인 미슐랭 맛집대전을 위해 미슐랭 전담 요원들이 비밀요원으로 각 나라의 막내셰프로 투입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
- ◎ 문의: 안동시소년소녀합창단(054-855-7300)



## 2019 제야의 타종행사

- ◎ 일시: 2019년 12월 31일(화)
- ◎ 장소: 안동시 웅부공원 시민의 종 특설무대
- ◎ 내용: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새 해를 알리는 타종행사 진행
  - 신년휘호 퍼포먼스
  - 타종식
  - 신년메세지 전달
  - 축하공연, 부대행사 등
- ◎ 문의: 안동시청 행정지원실(054-840-6084)

## 2020 일출봉 해맞이 행사

- ◎ 일시: 2020년 1월 1일(수) 6:50
- ◎ 장소: 안동시 녹전면 녹래리 일출암
- ◎ 내용: 2020년 경자년 첫 해를 맞이하고 새 출발을 다짐 하는 행사
  - 2020년 일출 참관
  - 새해맞이 축하공연
  - 떡국·차 나눔 행사
  - 신년메세지, 내빈덕담 등
- ◎ 문의: 한국예총 안동지부(054-857-1767)



## 2020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 ◎ 일시: 2020년 2월 8일(토)
- ◎ 장소: 낙동강변 둔치(청소년 수련관 앞)
- ◎ 내용: 달집태우기, 민속놀이체험(자신밟기, 웃놀이, 팔씨  
름, 연날리기 등), 강강술래, 가훈쓰기, 보름 음식  
체험 등
- ◎ 문의: 안동문화원(054-859-0825)



## 안동 하회마을 동제



- ◎ 기간: 2020년 2월 8일(토)
- ◎ 장소: 안동 하회마을
- ◎ 내용: 매년 정월대보름 동신을 위해 동제를 지내며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
- ◎ 프로그램:
  - 하회마을 동제: 성황당, 국신당, 삼신당
  - 마을지신 밟기
  - 달집태우기
  - 하회별신굿탈놀이 특별공연 등

## 2019년 안동민속박물관 특별기획전 『안동 선비, 산수를 유람하다』

- ◎ 전시명: 안동 선비, 산수를 유람하다.
- ◎ 기간: 2019년 10월 23일(수) ~ 2020년 6월 30일(화)
- ◎ 장소: 안동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 ◎ 내용: 안동 선비들의 산수유람, 안동의 구곡문화 관련 자  
료 전시  
(보물 제522호 강세황 필 도산서원도 등)
- ◎ 문의: 안동민속박물관(054-840-3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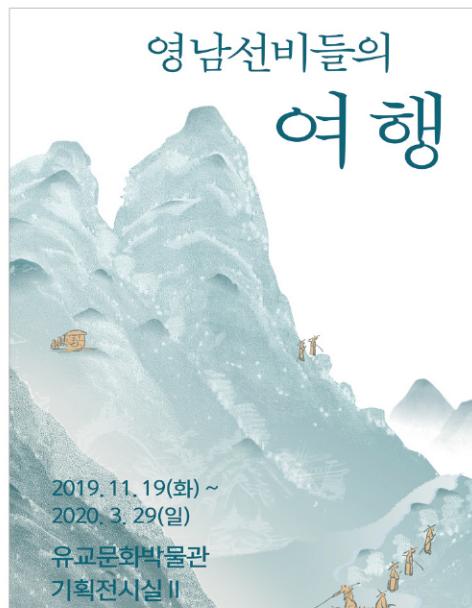
## 김강현 그곳에 가면 展

- ◎ 기간: 2019년 11월 1일(금) ~  
2020년 1월 31일(금)
- ◎ 장소: 이육사문학관
- ◎ 내용: 이육사문학관에서 진행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 전시회 중 하나로, 흙이 가진 고유한 질감을 그대로 살려낸 도자기 전시
- ◎ 문의: 이육사문학관(054-852-7337)



## 전통문화박물관협의체 연합전시 영남선비들의 여행

- ◎ 기간: 2019년 11월 19일(화) ~  
2020년 3월 29일(일)
- ◎ 장소: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II
- ◎ 내용: 영남선비들이 남긴 유람 관련의 그림과 기록을 대상으로 산(山), 강(江), 길(路), 구곡(九曲) 등 당시의 여행코스를 검증·복원하는 과정 등 관련 자료를 소개
- ◎ 문의: 한국국학진흥원(054-851-0800)



##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특별기획전시회 '안동의 집'

- ◎ 기간: 2019년 12월 5일(목) ~  
2020년 1월 31일(금)
- ◎ 장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내 기획전시실
- ◎ 내용: 안동이 가진 고유한 전통양식의 집과 그 속에 담긴 생활문화 변천사, 위계질서의 변화 등을 소개
- ◎ 문의: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054-843-7900)





# 2020년 새해 湯

## 만화 반려서요



###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Korean Spirit, Full of the glorious doctrines of Confucian and Buddhist Culture. Home of Korean learning and etiquette.  
Boasting of a five-thousand-year-old history.*

####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 버스

-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 기차

- 서울 청량리역 ► 안동
- 부산 부전역 ► 안동
- 대구 동대구역 ► 안동



[blog.naver.com/aftf](http://blog.naver.com/aftf)

[instagram.com/tourandong](https://www.instagram.com/tourandong)

[www.facebook.com/tourandong](https://www.facebook.com/tourandong)

'안동노닐기' 검색

